

# 경주지역 평기와의 타날형태 변화에 대한 검토

-단판 · 중판 · 인장 그리고 장판으로-

차 순 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I. 머리말

II. 연구사

III. 기와제작방법

IV. 유적과 유물

1. 월성
2. 안압지(전 임해전지)
3. 황룡사지
4. 사천왕사지
5. 경주남산 왕정극 제1사지  
(전 인룡사지)
6. 인왕동 556번지 유적
7. 삼랑사지

V. 기와사용에 대한 검토

VI. 맺음말

신라왕경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평기와와 전 중에서 비교적 초기 기와가 출토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출토사례와 평기와 제작방법-단판(短板), 중판(中板), 장판(長板) 그리고 인장와(印章瓦)-에 대한 비교작업을 통해서 개개 유물이 출현한 시기에 대한 초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경주지역에서 기와가 제작된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자료의 출현을 기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와의 사용은 무와통(無瓦桶) 혹은 와통으로 제작된 단판 기와가 초기에 제작되다가, 무와통식 기와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와통을 이용한 기와제작법의 효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판 기와 역시 중판 타날판으로 제작된 기와와 비교해 볼 때, 작업능률면에서 뒤떨어지지만 매우 정성을 들여서 제작을 하였다. 이러한 작업공정은 단순히 작업능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들 단판 기와의 제작은 궁성 혹은 관청 등으로 납품되는 기와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판 기와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판 기와는 통쪽(橫骨) 혹은 원통 와통(圓筒瓦桶)에 의해 제작된 기와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병합한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다.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신라 고유의 제와술이 반영된 기와로 대량생산에 적합한 제작법으로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보급되게 되면서, 고구려·백제계 제와술은 점차 소멸하게 된다.

장판 기와는 경주지역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사천왕사」 명 평기와와 삼당사3길 유적에서 출토된 어골문 평기와 등이 알려져 있다. 경주 외곽에서는 장판 기와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타날판에 새겨진 문양을 보면 선조문, 어골문, 사격자문 등과 다소 복잡해진 기하학문과 각종 문자(연호, 지명 등)가 확인된다.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의 장판 기와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천왕사와 같이 창건연대가 분명한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층위적 공반관계에 기초한 기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주지역에서 인장와가 사용되는 시기는 무와통작법(無瓦桶作法)이나 단판 기와보다 늦으며, 백제지역의 경우 오부(五部)나 간지(干支) 등이 확인되는데 비하여, 신라지역에서는 부호나 기호가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인장와를 제작하던 공인집단의 성격차이로 보이며, 신라에서 인장와가 확인되는 시점은 679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로 추정된다. 또한 인장와 및 인장전에 표기된 내용이 문자가 아니라 기호인 점은 백제지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 변화되었음을 알려주며

그러한 계기는 결국 신라의 병합에 의한 제작환경의 변화로 추정된다. 그리고 인장와는 경주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소멸되는데, 그러한 원인은 결국 원통 외통과 중판 타날로 제작되던 <신라기와>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고구려나 백제의 제와기술이 도태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라에 의한 삼국의 병합은 국가별로 각각 특징이 있던 제와기술을 신라의 것으로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귀착된 것이다.

주제어 : 경주, 타날판, 단판, 중판, 장판, 인장와

## I. 머리말

기와의 사용 목적이 햇빛과 비로부터 목조건물을 보호하는 것임은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고대사회에 있어서 목조건물에 기와를 사용한 것은 단지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장식성을 가미하는 것 외에도, 건물의 품격과 상징성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고대사회에서 기념비적인 성격을 지닌 대형 건축물을 건립한 목적은, 당시 사회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문화·기술이 결합된 <기념적 건물(記念的建物)<sup>1)</sup>>의 건립은 당대의 모든 문화적 노력이 집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 왕조를 바꿔가면서 만들어진 기와들은 그 종류와 문양이 매우 다양하며, 기와가 사용된 시기에 따라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와는 유적의 연혁과 시기적인 변화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기와의 출현시기와 공급과정에 대한 연구<sup>2)</sup>를 통해서, 해당 유적의 대략적인 연대를 추정해서 살펴볼 수 있고, 한 유적과 다른 유적에 대한 비교연구와 생산수급문제 등도 고찰할 수 있다<sup>3)</sup>. 또한 연호<sup>4)</sup>, 사용

- 1) 鈴木博之·石山修武·伊藤毅·山岸常人 編, 2006, 『記念的建造物の成立』シリーズ都市蕭濤軒歴史1, 東京大學出版會(東京)
- 2) 김장호, 2007, 「新羅 기와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한국 고대 불교고고학의 연구』, 서경문화사, pp.81~158.
- 3) 기와의 생산지와 제작기술, 수급관계, 同范瓦가 출토된 유적들을 비교·고찰한 글은 아래와 같다.  
金誠龜, 1983, 「多慶瓦窯址出土 新羅瓦磚小考」, 『美術資料』第三二號, 國立中央博物館, pp.1~31.  
金存植, 2007, 「삼국·통일신라 와요지 조사 현황과 연구 방향」, 『제50회 전국역사학대회』, pp.383~392.  
朴洪國, 1980, 「慶州地方에서 出土된 文字銘瓦」, 『全國大學生學術研究發表論文集』(人文分野), 高麗大學徒護國團, pp.93~120.  
朴洪國, 1986, 「三國末~統 初期新羅瓦磚에 대한 考察 - 月城郡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그 出土 瓦磚을 中心으로 -」,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 請求論文  
朴洪國, 1988,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出土 瓦磚에 對한 考察」, 『嶺南考古學報』5, 嶺南考古學會, pp.57~96.  
車順喆, 1998, 「大邱市 漆谷 3地區 建物址 遺蹟 發掘調査 概報」, 『제9회 영남대장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발표회』, 영남대장문화재연구원, pp.92~95.  
차순철, 2000, 「경주지역 평기와 수급관계에 대한 일고찰-석장사지 출토 평기와를 중심으로-」, 『신라학연구』 제4집, 위덕대학교부설 신라학연구소, pp.229~252.  
崔孟植, 1999, 『百濟 평기와 新研究』, 學研文化社  
최맹식, 2006,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 주류성  
崔兌先, 1993, 「平瓦製作法の 變遷에 對한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이선희, 2006, 「원성해자 출토 수막새의 同范瓦 검토」, 『慶研考古』 제7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5.  
이선희, 2006, 「수막새의 동변와(同范瓦)에 대한 검토」, 『文化財』第三十九號, 國立文化財研究所, pp.59~93.  
李仁淑, 2004, 「統 新羅~朝鮮前期 평기와 製作技法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 4) 삼국시대에서 남북국시대까지 사용된 평기와 중 年號가 사용된 것은 「儀鳳二年...」(677年, 부여 부소산성), 「儀鳳四年 帛土」(679年, 경주 원성, 안압지 등), 「開元四年丙辰」(716年, 익산 미륵사지), 「睿昌七年丁卯年末印」(847年, 부여 부소산성), 「大中三年」(849年, 청주 흥덕사지) 등이 알려져 있다.  
국립청주박물관, 2000,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p.130. 도판No.174~177.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6, 『彌勒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Ⅱ 도판199-②.

쳐<sup>5)</sup>, 제작자, 공급자 등에 대한 내용이 기와 등무늬 또는 막새, 내림새의 앞에 찍혀있는 명문와를 통해서 기와가 사용된 수급처와 사용연대를 밝힐 수도 있다.

필자는 과거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평기와의 등무늬를 식별하여 구분한 결과, 같은 기와가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는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연구에서는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제작된 기와가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소비지에서 다른 소비지로 옮겨지는 현상에 대해서 석장사지(錫杖寺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고찰한 바 있다<sup>6)</sup>. 이러한 비교작업결과 당시에 기와를 제작하고 공급받아 사용하던 방법은 전용와(專用瓦), 공용와(共用瓦), 교류와(交流瓦), 재활용와(再活用瓦)로 구분할 수 있었다<sup>7)</sup>. 그러던 중 필자는 경주 인왕동 556번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sup>8)</sup>를 작성하던 중 기와와 전돌의 표면에 인장을 찍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 보고된 인장과 2점은 백제지역과의 교류 혹은 장인에 의해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졌고, 양국 사이에 이루어진 기와교류의 한 증거물로 추정되어졌다. 또한 최근 평기와를 중심으로 생산지(瓦窯)와 소비지 사이에 이루어진 기와의 수급관계를 살펴보던 중, 기존의 타날에 의한 제작방법과는 구분되는 평기와의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인장과와 인장전 역시 그 출토사례가 여러 곳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기와가 경주지역에 출현하게 된 시기와 사용문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통일기까지 경주지역에서는 장판 타날을 한 기와가 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sup>9)</sup>을 제기한 문제<sup>9)</sup>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신라왕경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평기와의 전 중에서 비교적 초기기와가 출토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출토사례와 평기와 제작방법 중 타날방법의 차이점, 즉 타날판의 형태-단판(短板), 중판(中板), 장판(長板) 그리고 인장과(印章瓦)-에 대한 비교작업을 통해서 개개 유물이 출현한 시기에 대한 초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5) 사용처가 銘記된 평기와는 「在城」, 「溟州城」, 「全州城」과 같이 城의 이름이 명기된 것, 「皇龍寺」, 「靈廟寺」, 「四天王寺」, 「善門寺」, 「方正寺」, 「東寺」 등과 같이 寺院의 이름이 적힌 것, 「太極院」, 「茶蓮院」, 「仇於駟」과 같이 驛院의 이름이 적힌 명문와 등 많은 종류가 알려져 있다.

6) 차순철, 2000, 「경주지역 평기와 수급관계에 대한 일고찰-석장사지 출토 평기와의를 중심으로-」 『신라학연구』 제4집, 위덕대학교부설 신라학연구소, pp.229~252.

7) 차순철, 2007, 「사원출토 평기와의 수급관계 고찰」 『불교미술사학』 제5집,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pp.527~554.

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仁旺洞 556·566番地 遺蹟 發掘調査報告書』

9) 趙成允, 2002, 「慶州 出土 中板 打捺文樣 평기와의 製作時期와 그 意味」 『佛敎考古學』 第2號, 威德大學校博物館, pp.157~170.

조성윤, 2003, 「新羅 長板 打捺文樣 평기와의 慶州製作與否에 대하여」 『梨花史學研究』 第30輯, 梨花史學研究所, pp.65~77.

## II. 연구사

신라에서 기와가 사용된 시기는 『삼국사기』에 나타난다. 먼저 지마니사금(祇摩尼師今) 11년(122)조에는 “여름 4월에 큰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날아갔는데 저녁이 되어서 그쳤다<sup>10)</sup>.”와 조분니사금(助賁尼師今) 4년(233)에는 “여름 4월에 큰 바람이 불어 지붕의 기와를 날렸다<sup>11)</sup>.”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 기사 내용에 대한 신뢰성은 차치하더라도 주목되는 내용은 바람에 기와가 날아갔다는 부분이다. 최근 한성백제의 도읍지였던 서울 풍납토성에 대한 발굴조사<sup>12)</sup>에서 출토된 기와를 살펴보면 매우 두께가 얇은 기와가 확인되는데, 혹시 이 시기의 기와 역시 이렇게 얇은 기와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근 경주지역에서도 두께가 매우 얇은 기와들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성구는 신라 기와의 발생에 대해서 『삼국사기』에 나타난 앞의 기사내용에 주목하여, 서기 2~3세기경에는 궁성에서 기와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물자료가 전하지 않으므로 경주 반월성, 명활산성, 인왕동 고분 등지에서 출토된 암·수막새의 연대를 5세기경으로 추정하고, 불교 전래 이전에 이미 기와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13)</sup>.

신창수는 황룡사지의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기와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서 출토유물을 모두 4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기와의 특징을 고찰하였다<sup>14)</sup>. 황룡사지 폐와무지 출토기와에 대한 신창수의 구분 안을 살펴보면, 제1기(553~569년) - 황룡사 창건기, 제2기(6세기 후반~말) - 중건기, 제3기(7세기초~중반) - 구층목탑의 완성, 제4기(7세기말~8세기중엽) - 폐와무지의 하한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초기에 백제에서 전래된 기와제작 기술은 이후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되고, 점차 신라 고유 형식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경주지역의

10) 金富軾 『三國史記』卷第·新羅本紀第·祇摩尼師今 11年條 “夏四月 大風東來 折木飛瓦 至夕而止”

11) 金富軾 『三國史記』卷第·新羅本紀第·助賁尼師今 4年條 “夏四月 大風飛屋瓦”

12) 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風納土城』

國立文化財研究所, 2002, 『風納土城II-동벽 발굴조사 보고서-』

한신大學校博物館, 2004, 『風納土城III-三和聯立 再建築 事業敷地에 대한 調査報告-』

한신大學校博物館, 2004, 『風納土城IV-慶堂地區 9號 遺構에 대한 發掘報告-』

國立文化財研究所, 2005, 『風納土城V-삼표산업 사옥 신축예정부지 발굴조사보고서-』

한신大學校博物館, 2005, 『風納土城VI-慶堂地區 中層 101號 遺構에 대한 報告-』

한신大學校博物館, 2006, 『風納土城VII-慶堂地區 上層 廢棄場 遺構에 대한 發掘報告-』

13) 김성구, 1992, 『옛기와』, 대원사, pp.60~61.

14) 申昌秀, 1987, 「三國時代 新羅기와의 研究-皇龍寺址 出土 新羅기와를 中心으로-」 『文化財』第20號,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pp.1~57.

초기기와는 월성 출토자료에 근거하여 6세기 전반부터 제작된 막새기와가 궁성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박홍국은 경주 망성리 와요지에서 출토된 '의봉사년개토(儀鳳四年皆土)' 명이 타날된 평기와와 암·수막새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당시 기와의 생산 및 수급관계 등에 대해서 논증하였다<sup>15)</sup>. 특히 '의봉사년개토(儀鳳四年皆土)' 명 기와와 이때 제작된 암·수막새 그리고 보살화문전돌이 망성리 와요지에서 월성과 안압지 등 여러 유적으로 공급되었음을 밝혔다. 그 결과 신라기와연구에 있어서 고식(古式)과 신식(新式)기와의 사용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획기를 확정하였다.

최태선은 와통과 기와 등에 타날된 무늬에 대한 형식을 분류하여 삼국~조선시대 평기와의 편년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단판과 중판 타날판이 평기와 제작이 시작된 개시기부터 사용된 것 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7세기 초~8세기 초까지는 계속 사용되다가 8세기 중엽 이후부터 9세기 이전에는 장판 타날판이 출현하면서 변화한다고 보았다. 또한 신라기와의 사용시기 중 6세기 이전단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통형 와통에 단판 타날판을 횡방향으로 타날한 평기와(Ⅱ Ab형식)에 대해서는 6~7세기경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16)</sup>.

조성운은 경주지역의 안압지에서 출토된 평기와의 타날문양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연구작업을 통해서 단판 타날문양의 평기와는 상한연대는 7세기말이고 하한연대는 9~10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7)</sup>. 또한 안압지에서 출토된 평기와에 대한 분류를 통해서 고신라시대의 유구와 연못이 축조되는 674년과 건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679년으로 구분하였고, 고식연화문수막새와 구분되는 안압지 창건기 기와를 설정하고 있다<sup>18)</sup>.

김기민은 경주 손곡동·불천리 와요지에서 출토된 평기와와 막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모두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1단계는 경주지역에서 초기에 제작된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가 구분되지 않은 모습으로 무와통작법(無瓦桶作法)에 의해 제작되었고, 6세기 전반 이전에 해당된다. 2단계는 6세기 전반와 중반 사이에 백제를 통한 수막새 제작법이 도입되는데, 무와통식 제작법으로 만든 수키와에 막새가 부착되면서 제작방법은 일체형<sup>19)</sup>이다. 3단계는 통쪽 와통이 도입된 시기로 백제 와장(瓦匠)에 의해서 제작된 기와와 재지인들에 의해서 고정식 와통을 이용한 제작방

15) 朴洪國, 1986, 「三國末~統 初期 新羅瓦塼에 대한 考察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그 出土 瓦塼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 請求論文

朴洪國, 1988,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出土 瓦塼에 對한 考察」 『嶺南考古學報』 5, 嶺南考古學會, pp.57~96.

16) 崔兌先, 1993, 「平瓦製作法の 變遷에 對한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17) 趙成允, 2002, 「慶州 出土 中板 打捺文樣 평기와의 製作時期와 그 意味」 『佛教考古學』 第2號, 威德大學校博物館, pp.157~170.

조성운, 2003, 「新羅 長板 打捺文樣 평기와의 慶州製作與否에 對하여」 『梨花史學研究』 第30輯, 梨花史學研究所, pp.65~77.

18) 趙成允, 2006, 「新羅 瓦로 본 雁鴨池 築造에 對하여」 『佛教考古學』 第6號, 威德大學校博物館, pp.57~74.

19) 수막새의 뒷면에 원통형 수키와를 부착한 후 통기와의 절반을 절개하여 수막새를 만드는 방법

법이 확인되며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4단계는 7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원통형 와통과 수키와 와통이 등장하며 수키와는 3매작법이, 암키와는 제작후 측면에 대한 2차 정면이 이루어진다. 5단계는 신라기와의 정착된 시기로 7세기 중반에서 8세기 중엽·이전에 해당한다. 원통형 와통에 의한 암키와의 제작과 2매작법에 의한 수키와의 제작이 이루어진다<sup>20)</sup>. 이에 따르면 초기 신라기와는 무와통 제작기법에 의해서 제작되었고 그 기원문제는 한→낙랑→가야→신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심상욱은 경주 인왕동 556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인장와에 대해서 보고자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백제 와공에 의해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21)</sup>.

이인숙은 평기와에 나타난 연호를 기준으로 국내 유적에서 출토된 명문와를 기준으로 제 속성을 분석하여 통일신라~조선시대까지의 평기와에 대한 속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단판 타날판은 삼국시대~679년 전후까지 사용되었고, 단판에서 중판으로 변화되었는데 단판의 사용은 중판과 함께 사용되는 짧은 과도기를 거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단판 타날판의 사용시기는 679년을 전후한다고 보고 있다. 중판 타날판은 679년 전후~847년 이전으로 그 상한은 단판의 하한 연대와 일치하며, 장도 청해진유적<sup>22)</sup>과 영동 계산리유적<sup>23)</sup>에서 출토된 중판 및 장판 기와와의 공반관계에 근거하여 하한연대를 잡고 있다. 특히 장도 청해진유적이 운영된 기간이 828년~851년까지이므로 그 하한을 851년으로 볼 수 있지만, 부여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회창칠년(會昌七年:847)' 명 이후에 제작된 명문와의 경우 대부분 장판이므로 847년을 하한연대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장판 타날판은 역시 장도 청해진 유적이 만들어진 연대인 828년까지 소급해서 볼 수 있지만, 중판과 장판 기와가 함께 사용되는 과도기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일단 847년 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4)</sup>.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한 인왕동 556번지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건물지 하층 건물 적심석이 확인된 VII층에서 출토된 고배의 연대를 고려하여 5세기 후반에 축조된 건물의 존재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함께 출토된 토기제작수법의 평기와와 인장와의 연대에 대해서 5세기 말~6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다<sup>25)</sup>. 그리고 남북도로의 노면에서 출토된 '의봉사년개토' 명문와는 유적이 형성된 시기와 관련하여 도로가 보수된 하한연대를 알려준다. 또한 건물 기단층에서 확인된 통쪽 와

20) 金基民, 2002, 「新羅기와 製作法에 관한 研究 -慶州 勿川里 出土기와를 중심으로-」, 東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1) 沈相六, 2005, 「百濟時代 印刻瓦에 관한 研究」, 公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p.20.

22) 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將島 淸海鎮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國立文化財研究所, 2002, 『將島 淸海鎮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I』

23)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2, 『永同 稽山里遺蹟』

24) 李仁淑, 2004, 「統一新羅~朝鮮前期 평기와 製作技法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pp.99~103.

2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仁旺洞 556·566番地遺蹟發掘調査報告書』, p.113.





그림 1. 삼랑사 3길유적 출토 장판기와  
(東國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2000, 『三朗寺  
3길遺蹟』 현장설명회자료1 전제)

통과 일매작법(一枚作法)으로 제작된 평기와의 존재는 신라기와의 출현과 관련하여, 적어도 5세기말에 기와가 폭넓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한 경주 삼랑사3길 유적에서 조사된 통일신라시대의 폐와무지 안에서 출토된 유물들 중에는 중판과 장판 평기와가 섞여서 폐기된 모습이 확인되었는데<sup>26)</sup>, 경주지역에서 사용된 장판기와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로 추정되고 있다<사진 1>. 특히 장판 타날판의 등무늬가 어골문인 점은 장판기와의 사용과 연대 판정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연구자들의 성과로 볼 때, 경주지역에서 기와가 최초로 사용된 시기는 일단 5세기 후반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시기의 유물에 대한 확인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주지역에서는 5세기 말 혹은 6세기

초엽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사원 등에서 기와가 사용되게 되었고<sup>27)</sup>, 기와를 제작한 와요도 여러 곳이 발굴조사가 되면서 수급관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장판 기와의 사용문제는 조사된 자료로 볼 때, 좀더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Ⅲ. 기와제작방법

기와의 제작방법은 고대에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되었지만 기본적인 공정작업은

26) 東國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2000, 『三朗寺3길遺蹟』 현장설명회자료 1

27) 불교사원에서의 기와사용문제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하지만 신라 법흥왕 14년(527)에 일어난 이차돈의 순교 이후 법흥왕 20년(533)부터 중창하기 시작하여 신라 진흥왕 5년(544)에 완공된 흥륜사나 진흥왕 15년(553)에 궁궐을 짓다가 사원으로 바뀐 황룡사는 진평왕 6년(584)에 금당이 완공되고, 선덕여왕 12년(643)에 9층목탑이 완공된 내용으로 볼 때, 6세기 대에는 폭넓게 기와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초기 사원과 관련된 내용이 문헌에 등장하는 점으로 볼 때, 그 시작은 5세기 대일 가능성이 많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sup>28)</sup>. 먼저 기와를 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① 채토 작업→② 흙고름 작업→③ 흙벼늘 작업→④ 다무락 쌓기(소지 제작)→⑤ 성형→⑥ 건조→⑦ 구움(소성) 등 7단계로 나눌 수 있다<sup>29)</sup>.

기와제작에 있어서 기본 틀인 와통(瓦桶)<sup>30)</sup>의 사용유무는 제작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구분법이 되고 있다. ‘무와통(無瓦桶)에 의한 제작방법’과 ‘와통에 의한 제작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와통에서 와통을 사용하는 쪽으로 제작방법이 변화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암키와를 제작하기 위한 와통은 좁고 긴 나무조각을 끈으로 연결해 만든 통쪽 와통과 둥근 통나무를 파내어서 만든 원통 와통으로 구분되며, 솟키와를 만들기 위한 와통은 나무에 구멍을 뚫은 후 끈으로 둘러서 만든 것과 기와의 크기에 맞추어 통나무를 적당히 잘라 만든 것이 조사되어있다<sup>31)</sup>.

소지(素地)는 기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흙이다. 채토된 흙을 불로 이기고 다시 정제하여 숙성한 것으로 기와로 만들기 직전 단계의 흙이다. 기와로 성형하기 위해서 와통에 소지를 두르는 방법상의 차이에 의해서 ‘가래떡형 소지(운적법·권상법)’와 ‘널판형 소지’로 구분된다. 경주지역의 평기와의를 살펴보면 가래떡형 소지와 널판형 소지가 모두 확인된다고 한다<sup>32)</sup>.

기와를 제작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는 타날판과 와도(瓦刀), 예새, 가죽 그리고 와통의 표면을 덮는 와포(瓦布) 등으로 모두 기와의 가공·성형작업에 사용된다.

타날판은 그 형태에 따라서 단판(短板), 중판(中板), 장판(長板) 그리고 도장(印章)으로 구분된다. 먼저 단판은 가로세로의 비율이 대략 1:1 정도로 만든 것으로 타날 단위는 4~5회이며 크기는 6~8cm 정도이다<sup>33)</sup>. 기와의 표면을 횡방향과 종방향 그리고 무질서한 방향으로 두드려서, 기와 내부의 공기를 빼내고 전체적으로 표면의 두께와 밀도를 고르게 만드는데 사용된다. 경주지역에서는 월성과 안압지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에서 주로 확인되며, 제작연도가 알려져 있는 ‘의봉사년개토’ 명명문화도 유명한 단판기와 중에 하나이다. 중판은 가로세로의 비율이 대략 1:3 정도로 만든 것으로, 타날 단위는 2~3회이며 크기는 15~20cm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기와의 표면을 횡방향으로 두드

28) 현재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전통기와 제작법과 고대 기와제작법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이 참고가 된다.

장경호, 1988, 「한국 전통기와 제작기법과 그 규격에 관한 고찰」 『초우 황수영박사고회기념 미술사학논총』, 통문관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製瓦丘(중요부형문화재 제91호)』

宋應星 著·崔炆 譯, 1997, 『天工開物』, 전통문화사

최맹식, 2006, 「Ⅱ.삼국 평기와 제작기법의 특징」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 주류성, pp.45~203.

29) 최맹식, 2006,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 주류성, pp.50~51.

30) 기와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원통형 틀로 진토편 혹은 진토편을 원통의 표면에 감아서 성형을 한다.

31) 최맹식, 2006,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 주류성, p.53.

32) 최맹식, 2001, 「평기와 연구의 최근 동향」 『백제연구』 제34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金基民, 2001, 「新羅기와製作法에 관한研究-慶州勿川里出土기와를 중심으로-」, 東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33) 최대선은 타날판의 크기를 길이 30~40cm 정도의 평기와를 기준으로 개개 타날이 몇 번 시문되었는가를 구분하였다. 따라서 타날 횟수는 실제로 작업한 최대치가 된다.

리는데, 상단과 하단으로 각각 단이 구분되어져 있다. 하단은 종방향, 상단은 약간 비스듬한 경사진 모습으로 타날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타날방향의 차이는 와공의 작업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장판은 가로 세로의 비율이 대략 1:6 이상으로 만든 것으로 타날 단위는 1회이며 크기는 30~40cm 정도이다.

타날판에는 사찰의 이름이나 지명, 연호 등과 같은 내용의 명문만을 새겼지만, 점차 장식문양으로 변화하게 된다. 기와제작에 있어서 타날판의 형태가 단판에서 중판으로 그리고 중판에서 장판으로 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가 고찰하였는데, 시간적인 흐름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sup>34)</sup>, 일부는 지역적인 차이와 수용과정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신라의 평기와 중에서는 주로 단판과 중판이 확인되며, 장판의 존재는 매우 드문 것으로 제작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sup>35)</sup>.

한편 평기와와 전의 표면에 인장을 찍은 사례도 다수 확인되는데, 그 기원에 있어서는 백제와의 관련성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인화문토기와 같이 당시 사용되던 그릇의 표면에 글자가 새겨진 도장을 찍은 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sup>36)</sup>. 따라서 전적으로 백제의 영향으로 봐야할 지는 좀 더 자료의 증가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기와의 표면을 도구로 두드리는 타날작업은 소지 안에 포함된 공기 기포를 밖으로 내보내고, 동시에 가래떡형 소지나 널판형 소지의 밀도를 높여주고 점토의 연결부분을 치밀하게 고착시켜 줌으로써 소성 후에도 보다 단단한 경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와도는 기와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칼로 철제 손칼(鐵刀子), 죽도(竹刀), 철사(鐵絲: 짚줄<sup>37)</sup>) 등이 사용된다. 와통에서 성형된 기와를 분리하거나 표면 정면, 소지를 점토덩어리에서 분리하는 작업에 사용된다. 통기와를 균일한 모양으로 자르는 작업을 통해 암기와는 4매, 수기와는 2매로 구분되는데, 초기에는 3매로 분리된 경우도 알려져 있다. 와도의 분리방향에 대해서는 세밀한 관찰을 통한 보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sup>38)</sup>. 또한 와도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와통에 돌출된 눈테가 만들어 지는데, 뾰족한 못이나 돌대 등이 사용되었다.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평기와에서는 돌기형, 단절형, 젓가락형 눈테가 확인된다.

와통에 덧씌우는 와포는 와통에서 성형된 통기와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통

34) 崔兌先, 1993, 「平瓦製作法の變遷에 대한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李仁淑, 2004, 「統一新羅-朝鮮前期 평기와 製作技法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35) 趙成允, 2002, 「慶州 出土 中板 打捺文樣 평기와의 製作時期와 그 意味」 『佛教考古學』第2號, 威德大學校博物館, pp.157~170.

조성윤, 2003, 「新羅 長板 打捺文樣 평기와의 慶州製作與否에 대하여」 『梨花史學研究』第30輯, 梨花史學研究所, pp.65~77.

36) 國立慶州博物館, 2002, 『文字로 본 新羅-新羅人の 紀錄과 筆跡-』, pp.86~87, No125~132.

37) 최맹식, 2006,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 주류성, p.111.

38) 최맹식, 2006,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 주류성, pp.113~120. 도면 28~32, 도판 23~25.

보의 재질은 삼베, 새끼줄(繩文)<sup>39)</sup>, 갈대<sup>40)</sup>, 대나무 발(竹狀模骨)<sup>41)</sup> 등이 알려져 있는데, 경주지역에서 제작된 기와는 대부분 삼베를 이용하고 있다. 삼베의 종류는 올간격이 성긴 것에서 촘촘한 것까지 다양하게 관찰되며, 통보를 보수하거나 서로 연결한 모습이 관찰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신라 평기와의 일반적인 모습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경주지역 평기와의 속성

형태		삼국	통일기	통일기	통일기
와동	무와동	○		월성해자, 황룡사지	손곡동·물천리와요
	통쪽 와동	○	○(?)	황룡사지, 인왕동556번지	손곡동·물천리와요
	원통 와동	○	○	월성해자, 안압지, 황룡사지, 방내리고분군 등	망성리와요, 동산리와요, 다경와요, 금장리와요
타날판	무분	○	○	월성해자, 인왕동556번지	손곡동·물천리와요
	단판	○		월성해자, 안압지, 황룡사지 등	망성리와요
	중판	○	○	월성해자, 안압지, 황룡사지, 삼랑사지, 방내리고분군 등	동산리와요, 다경와요, 금장리와요
	장판		○(?)	삼랑사지	
소지	가래떡형	○		월성해자, 인왕동556번지, 황룡사지, 방내리고분군 36호 등	손곡동·물천리와요
	널판형	○	○	월성해자, 안압지, 황룡사지, 삼랑사지, 방내리고분군 40호 등	망성리와요, 동산리와요, 다경와요, 금장리와요
눈테	돌기	○		황룡사지	
	끈이음식	○		황룡사지, 방내리고분군	
	젓가락식	○	○	월성해자, 안압지, 황룡사지, 방내리고분군	
통보	삼베	○	○	월성해자, 안압지, 황룡사지, 삼랑사지, 방내리고분군 등 대부분 유적	망성리와요, 동산리와요, 다경와요, 금장리와요 등

39) 고구려의 관방유적(연천 호로고루, 연천군 당포성, 아미성 등)과 백제지역(공주 정지산, 부여 부소산성, 대전 원평동, 계족산성, 익산 왕궁리, 순천 꾀단산성 등)에서 주로 확인된다.

40) 대전 원평동산성에서 확인된 바 있다.

國立公州博物館, 1999, 『大田月坪洞遺蹟』

41) 국내에서는 출토사례가 알려져 있지 않고, 주로 일본의 고대사찰에서 확인된다고 한다.

최맹식, 2006,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 주부성, pp.134~135.

## IV. 유적과 유물

### 1. 월성

월성은 신라왕궁이 위치한 곳으로 알려진 토성으로, 동서너비 890m, 남북길이 260m로 전체 면적은 193,845㎡(약 58,638평), 성 내부 면적은 112,500㎡(약 34,031평)으로 50~70m 정도의 성벽이 약 1,800m 정도 잔존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22년(101)에



사진 2. 남궁지인(南宮之印) 명 명문와  
(國立慶州博物館, 2002, 『文字로 본  
新羅-新羅人의 紀錄과 筆跡-』, p.91.  
153 전제)

금성(金城)의 동남쪽에 성을 쌓고 월성(月城)이라 했으며, 재성(在城)<sup>42)</sup>이라고도 했는데<sup>43)</sup> 주위가 1,023보였다고 한다. 이때 파사이사금은 거처를 월성으로 옮겼으며, 월성 북쪽에는 만월성(滿月城)이 있었다. 이는 월성을 쌓기 전에 왕이 살던 곳으로 짐작된다. 월성은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18년(475)<sup>44)</sup>~소지마립간(昭知麻立干) 9년(487)<sup>45)</sup>에 궁성을 명활성(明活城)으로 옮긴 시기를 제외하면 줄곧 신라왕들이 거처하던 곳이었다. 성 내부에는 남문과 정문인 귀정문, 북문, 인화문, 현덕문, 무평문, 준례문 등과 월상루, 망덕루, 명학루, 고루 등의 누각, 남당, 조원전 등의 전각과 양궁, 사랑궁, 대궁 등과 같은 궁궐 건물이 위치하였다.

월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1990년~현재까지 해자지역을 중심으로 실시중이다. 조사결과 성벽을 따라서 존재하는 석축형 해자와 연못형 해자가 확인되었고, 월성

42) 원성과 그 주변에서는 ‘在城’ 명 수막새와 명문와가 출토되고 있다.

43) 金富軾, 『三國史記』 卷 第一 新羅本紀 第三 婆娑尼師今 22年條 “二十二年 春二月 築城名月城 秋七月 王移居月城.”

44) 金富軾, 『三國史記』 卷 第三 新羅本紀 第三 慈悲麻立干 18年條 “十八年 春正月 王移居明活城”

45) 金富軾, 『三國史記』 卷 第三 新羅本紀 第三 慈悲麻立干 9年條 “九年 …秋七月 葺月城”

金富軾, 『三國史記』 卷 第三 新羅本紀 第三 慈悲麻立干 10年條 “十年 春正月 王移居月城”



사진 3. 의봉사년개토(儀鳳四年皆土) 명 명문와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博』, p.356.  
1145 전재)

와가 출토되었다. 평기와는 대체로 무와통식과 단판 기와를 사용했는데, 내남면 망성리 와요에서 생산된 ‘의봉사년개토(儀鳳四年皆土)’ 명이 타날된 평기와의와 암·수막새 등이 확인되었다(사진 3). 한편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고식수막새를 안압지 출토품과 비교한 결과, 소위 고구려식 수막새와 백제계 수막새를 사용한 건물과 출토지역이 차이남이 확인되었다<sup>49)</sup>. 따라서 고신라에 속하는 기와와 통일기 이후로 편년되는 기와가 구분되었는데, 안압지가 679~680년 사이에 완공된 점을 고려한다면 기와사용에 있어서 획기를 구분할 수 있다.

결국 679년 이전에 이미 백제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기와제작 기술이 일정하게 존재하다가 점차 신라 고유형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경주지역의 초기기와는 월성 출토자료에 근거할 때, 6세기 전반부터 궁성 등에 막새기와의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안압지(전 임해전지)

월성 동쪽에 위치한 안압지는 신라 문무왕 14년(674)에 완성<sup>50)</sup>되었는데, 주변에 세워진 건물

46) 文化財研究所 慶州古蹟發掘調査團, 1985, 『月城亥字 試掘調査報告書』  
文化財研究所 慶州古蹟發掘調査團, 1990, 『月城亥字 發掘調査報告書 I』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4·2006, 『月城亥字 發掘調査報告書 II』

47) 鄭良謨·姜友邦, 1974, 「新築 慶州博物館 新羅時代遺構第一次調査」 『博物館新聞』 第43號, 國立中央博物館  
鄭良謨·姜友邦, 1975, 「新築 慶州博物館 新羅時代遺構第二次調査」 『博物館新聞』 第45號, 國立中央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 2002, 『國立慶州博物館敷地發掘調査報告書-美術館敷地 및 連結通路敷地-』

48) 동일한 「남궁지인(南宮之印)」 명 기와편이 경주 동천동 696-2·697-13번지 일원에 대한 공동주택건설부지에서 출토된바 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경주 동천동 공동주택 건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2차 지도위원회 자료-』

49) 이선희, 2006, 「수막새의 동변와(同范瓦)에 대한 검토」 『文化財』 第三十九號, 國立文化財研究所, pp.84~87.

50) 金富軾, 『三國史記』 卷第六 新羅本紀 第七 文武王 14年條 “十四年二月宮內穿池造山種花草養珍禽奇獸”



사진 4. 조로이년(調露二年) 명 보상화문전(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磚』, p.352, 1132 전제)

들의 연대에 대해서는 ‘의봉사년개토(儀鳳四年皆土:679년)’ 명문와에 근거하여 건물의 최종 완공을 679년<sup>51)</sup>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안압지 내에서 확인된 건물지와 선대 유구로 추정되는 담장지 그리고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와 통일기 연화문수막새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안압지의 창간연대를 679년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sup>52)</sup>. 하지만 ‘조로이년’(調露二年: 680)이라는 제작연대가 씌어 있는 보상

화문전(사진 4)이 존재하는 점으로 볼 때, 안압지 내 건물들이 최종적으로 완공된 시점은 680년 이후로 보아야 될 것 같다<sup>53)</sup>.

1975~76년까지 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는 연 면적 15,663㎡ (4,738평)에 이르는 연못과 못을 둘러싸고 있는 석축호안 그리고 주변에서 모두 건물지 26동, 담장 8개소, 배수로 2기, 입수시설 1기 등이다<sup>54)</sup>. 또한 동궁과 인접한 북쪽 대지에는 내재석궁인 천주사가 위치했지만 상세한 현황은 알 수 없다<sup>55)</sup>.



사진 5. 정전(井) 명 명문와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磚』, p.371, 1210 전제)

51) 金富軾, 『三國史記』卷 第六 新羅本紀 第七 文武王 19年條 “秋八月…創造東宮 始定內外諸門額號 四天王寺成 增築南山城”

52) 趙成允, 2006, 「新羅瓦로 본 雁鴨池 築造에 대하여」 『佛敎考古學』 第6號, 威德大學校博物館, pp.57~74.

53) 이근직, 1998, 『경주의 문화유산』, 경주박물관회, p.14.

54)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78,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5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문화재산책 - 傳 天柱寺址」 『慶研考古』 제9호, p.11.



사진 6. 정도(井桃) 명 명문와 ◀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壘』, p.371, 1208 전제)



사진 7. 한(漢) 명 명문와 ▶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壘』, p.353, 1113 전제)

출토유물은 주로 와전류와 토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기물과 내재석공과 관련된다고 추정되는 금동제 판불 등과 목간등이 알려져 있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고식수막새는 모두 동궁이 건축되기 이전의 유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sup>56)</sup>되므로, 「정잔(井泮)」〈사진 5〉, 「정도(井桃)」〈사진 6〉, 「한(漢)」〈사진 7〉, 「한지(漢只)명 등과 같은 단판 기와와 「상(上)», 「하(下)», 「생양지인(生昂之印)」, 「의봉사년개토(儀鳳四年皆土)」, 「조로이년…(調露二年…)」등과 같은 보상화문전은 모두 679~68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압지 보고서에 게재된 단판 기와들의 연대는 모두 창건 당시로 추정되며, 함께 출토된 중판 기와는 단판 기와와 병행하여 존재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표 2. 안압지 출토 인장과 및 인장전

번호	인장형식	크 기(cm)		확 인 사 례		내 용 / 유 적
		지름/너비	깊 이	평기와	전 돌	
1	정잔(井泮)			○		방곽 안에 '정잔(井泮)' 를 배치함 안압지(雁鴨池)
2	정도(井桃)			○		방곽 안에 '정도(井桃)' 를 배치함 안압지(雁鴨池)
3	上	1.9	?		○	원안에 '上' 자를 배치함 천주사지(天柱寺址) <sup>57)</sup>
4	下	1.5	?		○	원안에 '下' 자를 배치함 천주사지(天柱寺址)
5	생양지인(生昂之印)				○	방곽 안에 '생양지인(生昂之印)' 을 배치함 안압지(雁鴨池)

56) 이선희, 2006, 「수막새의 동범와(同范瓦)에 대한 검토」 『文化財』第三十九號, 國立文化財研究所, pp.59~93.

57) 國立慶州博物館, 2002, 『文字로 본 新羅-新羅人の 紀錄과 筆跡-』, p.121, No.273.



### 3. 황룡사지

황룡사지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칠처가람(七處伽藍)'의 하나로 경주지역에서 가장 큰 사찰이다. 신라 진흥왕 14년(553)에 궁궐을 짓다가 황룡이 나타나자 공사를 중지하고 절로 고쳐짓기 시작하여, 17년만인 진흥왕 31년(570)에 완공하였다. 사역의 전체면적은 81,983㎡(24,800평)에 달하며, 회당 내곽 면적은 27,769㎡(8,400평)이다. 신라 진평왕 6년(584)에는 인도 아육왕이 보낸 금과 철로 만든 장육존상(丈六尊像)을 봉안하기 위해 금당을 다시 완공하였고, 선덕여왕 12년(643)에는 자장의 건의에 따라 9층목탑을 완성하였다. 이때 백제에서 기술자가 와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643년을 전후한 시기에 백제의 건축기술이 신라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고, 이때 제와기술이 함께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황룡사는 여러 차례 중창이 거듭되었지만 고려 고종 25년(1238) 원(元)의 4차 침입으로 불타버린 후 다시 중창되지 못했다.



사진 8. 황룡(皇龍) 명 명문와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磚』, p.365, 1180 전제)



사진 9. 옥간요(玉看窯) 명 명문와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磚』, p.360, 1167 전제)

1976년부터 1983년까지 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발굴조사결과 1탑3금당식의 건물배치와 중문, 목탑, 동·서·중금당, 강당 등이 회당과 함께 확인되었다<sup>58)</sup>. 출토유물은 약 4만여 점이며 대부분 기와가 차지하고 있다. 초기에 사용된 기와는 주로 단판 기와로 「정잔(井拵)」등의 명문이 확인되며, 이후부터는 중판 기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특히 명문와는 대부분 장판 기와로 「황룡(皇龍)」〈사진 8〉, 「황룡사(皇龍寺)」, 「상룡(上龍)」, 「룡용(籠龍)」, 「옥간요(玉看窯)」〈사진 9〉 등이 알려져 있다. 한편 현재 황룡사지 경내에 야적되어 있는 기와유물들 중에서는 인장전이 일부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sup>59)</sup>.

58)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2, 앞의 책.

59) 황룡사지에서 확인되는 인장전은 주로 측면에 '井', '口' 등과 같은 기호가 찍힌 것들이다.

#### 4. 사천왕사지

사천왕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창건과 관련된 기록들이 확인<sup>60)</sup>되는데, 신라 문무왕(文武王) 9년(670)에 창건되어 동왕 19년(679)에 완공된 '2탑1금당식'의 기람으로 동·서목탑이 출현하는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2006년도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익랑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서탑지 기반을 장엄한 녹유벽전(綠油壁塼)의 봉안위치도 처음으로 밝혀졌다<sup>61)</sup>.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고식연화문수막새<sup>62)</sup>와 「의봉사년개토(儀鳳四年皆土)」<sup>63)</sup>명 명문와는 당시 창건기의 기와로 추정되지만,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월성이나 안압지에서 확인되는 단판 기와 역시 분명하게 출토되지 않으므로, 679년에 완공된 사천왕사에서



사진 10. 四天王寺 명 명문와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塼』, p.363, 1173 전제)

동시기의 단판 기와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성이 크다. 일단 궁궐용으로 제작된 단판 기와가 단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공급<sup>64)</sup>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찰에 사용된 기와를 별도로 공급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기와들은 대부분 중판 기와와 장판 기와로 모두 동궁(안압지)이 건축되던 679~680년 사이에 제작된 기와들과는 구분될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에서 현재까지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기와는 매우 많지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60) 金富軾 『三國史記』卷第七 新羅本紀第七 文武王十九年條 “秋八月…創造東宮始定內外諸門號 四天王寺成 增築南山城”  
…然 『三國遺事』卷第二 文虎王 法敏條 “上元元年甲戌二月(674)…角干金天尊曰 近有明朗法師 入龍宮 傳秘法以來 請  
詔問之 朗奏曰 狼山之南有神遊林 創四天王寺於其地 開設道場則可矣 時有貞州使走報曰 唐兵無數至我境 廻  
王 召明朗曰 事已逼至 如何 朗曰 以彩帛假 宜矣 王以彩帛營寺 坼 五方神像 以瑜 明僧十二員 明朗爲 首 作文豆婁  
秘密之法 時唐羅兵未交接 風濤怒起 唐船皆沒於水 後改 寺名四天王寺 至今不墜壇席。”

61) 최장미·차순철, 2006, 「경주 사천왕사지 1차 발굴조사 개요 및 성과」, 『季刊 한국의 고고학』, 주류성, pp.68~77.

62)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고식연화문수막새는 모두 5점이 알려져 있다. 『朝鮮古蹟圖譜』 五에 게재된 고  
히라 료조(小平亮三)의 소장품(No.2239.)은 경주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동변와 7〉와 같은 기와로 추정된다.  
No.2249, No.2250은 모두 같은 소장품이다. 다음으로 『新羅古瓦の研究』에 실려 있는 고식연화문수막새는 帝室博  
物館 소장품(도판 제1-1, 도판 제20-1)과 도판 제20-4가 수록되어있다. 이 중 도판 제20-4는 『朝鮮古蹟圖譜』 五에  
소개된 것과 동일한 종류이므로 모두 2점이 확인된다.

朝鮮總督府, 1917, 『朝鮮古蹟圖譜』 五, p.651, No.2239, p.652, No.2249·2250.

濱田耕作梅原末治, 1934, 『新羅古瓦の研究』, 京都帝國大學文學部, 圖版 第 1, 圖版 第二 1·4

63) 金東賢 外 編著, 1976, 『新羅의 기와』韓國建築史大系 V 建築과 文樣. 上卷, 東山文化社, p.14.

64) 김창호, 2007, 「新羅 초기 密敎사원인 四天王寺의 역사적 위치」 『한국고대 불교고고학의 연구』, 서경문화사, p.225.



사진 11. 만(卍) 명 명문와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塼』, p.369, 1202 전제)

유물은 명문와이다. 대부분 장판 기와로 「사천왕사(四天王寺)〈사진 10〉, 「천왕사(天王寺)」, 「천왕사좌(天王寺左)」, 「천왕사우(天王寺右)」, 「사천왕사기사년중수와(四天王寺己巳年重修瓦)」, 「대길(大吉)」, 「천상사(天上寺)〈음각〉, 「만(卍)〈사진 11〉<sup>65)</sup>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장판 기와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사천왕사」명문와를 살펴보면 중앙 상단에 방곽을 만들고 내부에 「사천왕사」명문을 2열로 배치하였고, 방곽의 상하로는 사격자문을 배치하였다. 크기는 잔존길이 45cm, 너비 30cm, 두께 2cm이다<sup>66)</sup>. 현재 이 명문와는 사천왕사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기와로 「천왕사좌」, 「천왕사우」, 「卍」과 동일한 명문곽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명문곽이 없는

일반 평기와도 다수 확인되므로 사천왕사에서 장판 기와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명문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일신라시대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경주지역에서 장판 기와가 사용된 시기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인장와전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된다. 먼저 앞서 살펴본 월성해자나 안압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정잔(井拵)」, 「정도(井桃)」, 「한(漢)」, 「한지(漢只)」명 등과 같은 단판 기와가 출토되지 않는 대신, 인왕동 556번지 유적과 경주남산 왕정곡 제1사지(전 인왕사지)에서 확인되는 인장와나 인장전이 확인되는 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궁궐과 사찰에 기와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차이를 두었을 가능성을 재확인해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장와 및 인장전은 다음과 같다.

표 3. 사천왕사지 출토 인장와 및 인장전

번호	인장형식	크기(cm)		확인 사례		내용/유적
		지름	깊이	평기와	전돌	
1	삼원점문 (三圓點文)-1형	1.5~1.6	0.4	○		원안에 지름 4mm의 원형돌기 3개를 배치함. 인왕동 556번지 유적출토 인장와의 인장과 유사함.
2	다원문(多圓文)			○		원안에 원문 4개를 대칭되게 배치함
3	다원문(多圓文)				○	원안에 원형 돌기 3개를 등간격으로 배치함. 인왕동 556번지 유적출토 인장와의 인장과 유사함.

6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西部洞 19番地 遺蹟發掘調査報告書』, p.372, 寫真 106-4.

66) 慶州大學校博物館, 2006, 『慶州 佛國寺 境內聖寶博物館 建立豫定敷地 發掘調査報告書』, p.100, 도면 46-1.

## 5. 경주남산 왕정곡 제1사지(전 인용사지)

전 인용사지는 경주 남산 보존·정비사업의 일환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 중인 유적으로 2002년 11월 6일부터 현재까지 발굴조사 중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인용사는 신라 문무왕 14년(674)에 당(唐)에 인질로 잡힌 김인문(金仁聞)을 위해 창건되었다고 한다<sup>67)</sup>. 발굴조사결과 동·서 삼층석탑지와 각종 건물지, 방형 연못 등이 확인되었다<sup>68)</sup>. 현 건물지 하층에서는 선대의 유구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기와를 사용한 건물 중에서 연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출토유물 중에는 단판기와와 인장과 그리고 각종 명문와가 출토되었는데, 「…사(…寺)」, 「우관(右官)」, 「사천왕사(四天王寺)」 등이 확인된다.

단판 기와는 경주월성과 안압지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종류가 확인된다. 인장전은 모두 전돌에서 확인되는데, 일부는 인왕동 556번지 유적과 사천왕사지의 출토품과 같다.

표 4. 왕정곡 제1사지(전 인용사지) 출토 인장과 및 인장전

번호	인장형식	크기(cm)		확인 사례		내용 / 유적
		지름	깊이	평기와	전돌	
1	삼원점문 (三圓點文)-1형	1.5~1.6	0.4		○	원안에 지름 4mm의 원형돌기 3개를 배치함
2	삼원점문 (三圓點文)-2형	1.6	0.3		○	원안에 지름 5.5~6mm의 원형돌기 3개를 배치함
3	大-1형(左)	1.5~1.6	0.1~0.2		○	원안에 左書로 '大' 자를 배치함
4	大-2형(右)	1.5~1.6	0.1~0.3		○	원안에 右書로 '大' 자를 배치함

## 6. 인왕동 556번지 유적

선덕여자중·고등학교의 교사에 대한 증축공사계획에 따른 사전발굴조사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6~9세기경의 건물지와 도로유구, 담장 등이 확인되었다<sup>69)</sup>.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인왕동 556번지 유적의 상층유구는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67) 一然,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文虎法敏條 “…仁聞在獄時 國人爲醫寺名仁容寺 開設觀音道場 及仁聞來還 死於海. 1. 改爲彌 道場 至今猶存…”

6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경주 傳仁容寺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69)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仁旺洞 556·566番地 遺蹟 發掘調査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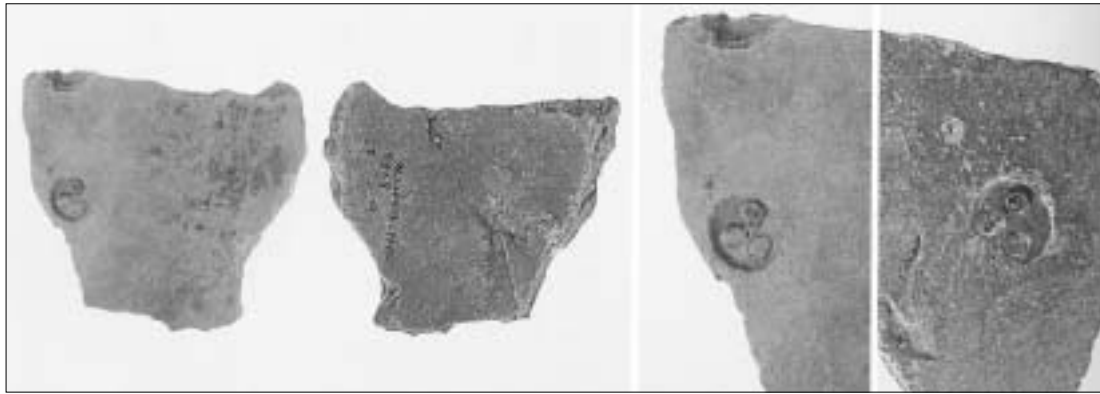


사진 12. 인장와(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仁旺洞 556·566番地 遺蹟 發掘調査報告書』, p.150. 도판14-2·3 전재)

건물로 추정되며, 이는 도로 상면에서 확인된 ‘의봉사년개토(儀鳳四年皆土)’ 명 명문와편의 존재와 기반을 성토한 층에서 출토된 각종 막새기와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하층유구는 6세기 전반 혹은 그 이전으로 소급해 올라갈 가능성이 높는데, 하층 건물지의 적심석이 확인된 VII층에서 출토된 고배의 존재로 볼 때, 최소한 5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 지역에 건물이 건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한편 1건물지 기반부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토기제작수법으로 만들어진 기와는 그 제작 연대를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비정할 수 있는데, 통쪽 와통을 사용하여 제작된 평기와와 인장와(印章瓦)의 존재는 신라의 평기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사진 12). 출토된 유물 중 초기기와로 생각되는 유물은 다음과 같다.

표 5. 인왕동 556번지 유적 출토 인장와

번호	인장형식	크 기(cm)		확 인 사 례		내 용 / 유 적
		지름	깊이	평기와	전 돌	
1	삼원점문 (三圓點文)-1형	1.8	0.2	○		원안에 지름 5~7mm의 작은 원형 돌기 3개를 배치함

표 6. 인왕동 556번지 유적 출토 유물

번호	유물명	크 기(cm)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1	명문와	11.1	11.6	2.3	의봉사년개토(儀鳳四年皆土) 명문와, 압기와편, 널판형 소지, 단판(短板), 남북도로 노면출토
2	인장와	10.1	11.5	1.3	수기와편, 널판형 소지, 인장(印章), 인장의 형태는 지름 1.8cm의 원안에 타원형 점 3개가 삼각형으로 배치됨. 동서방향의 담장석열 남쪽출토

번호	유물명	크 기(cm)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3	인장와	10.4	9.2	1.7	압키와편, 널판형 소지, 인장(印章), 인장의 형태는 지름 1.8cm의 원안에 타원형 짐 3개가 삼각형으로 배치됨. 동서방향의 답장석열 북쪽출토
4	토수기와	31.8	11.7~ 15.5	1.3	수기와, 널판형 소지, 등부분은 치밀한 물손질로 정면, 원통형와통, 토층조사갱 하부출토
5	비구기와	22.5	13.3~ 15.8	1.0	수기와, 너비 8cm 정도의 가래떡형소지, 등 부분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후 복리로 기면조정, 한 번에 3매의 숫키와를 제작, 무외통식, 제작와요는 손공동·물천리요지로 추정 <sup>70)</sup> , 토층조사갱 하부출토
6	압키와	21.0	15.7	1.8	압키와편, 가래떡형소지, 등 부분은 치밀한 물손질로 기면을 정면, 통쪽외통(산존길이 18cm, 너비 4cm), 선단부는 와도로 깨끗하게 면을 정면, 고정식 눈테(길이 2.5cm, 너비 0.8cm 정도의 타원형 돌기), 토층 조사갱 하부출토
7	압키와	25.3	23.4	1.6	압키와편, 널판형소지, 등 부분은 치밀한 물손질과 빗질로 기면을 정면, 짓가락형 눈테(길이 22cm, 너비 0.5cm), 토층조사갱 하부출토
8	압키와	23.1	21.0	1.4	압키와편, 널판형소지, 短板(格子文- 叩板크기 8×5cm) 타날후 물손 질로 지움, 사절흔적, 짓가락형 눈테(길이 6.5cm 정도), 토층조사갱 하부출토

## 7. 삼량사지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한 경주 삼량사3길 유적에서 조사된 통일신라시대의 폐와무지 안에서 출토된 유물들 중에는 중판과 장판 평기와의 섞여서 폐기된 모습이 확인되었는데<sup>71)</sup>, 경주지역에서 사용된 장판 기와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장판 타날판의 등무늬가 어골문인 점은 장판기와의 사용과 연대 판정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V. 기와사용에 대한 검토

이상과 같이 경주지역에서 초기 기와의 사용과 관련된 주요유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서 개

70)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慶州 競馬場 豫定敷地 C- I 地區 發掘調査報告書』

東國大學校 慶州귀피스博物館, 2002, 『慶州 蓀谷洞·勿川里遺蹟(Ⅲ)』-競馬場 豫定敷地(史蹟 430號) B地區-

71) 東國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2000, 『三朗寺3길遺蹟』 현장설 명회 자료1

관한 바와 같이 신라에서 기와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5세기 후반부터일 가능성이 있다. 4세기 대부터 기와가 사용된 고구려<sup>72)</sup>나 백제의 경우<sup>73)</sup>로 본다면 신라 역시 새로운 건축기술인 기와를 받아들여서 사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영남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기와가 출토된 김해 부원동유적의 연대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4세기말부터는 영남지역에 기와가 도입되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74)</sup>. 따라서 경주지역에 기와가 도입되는 시점은 백제를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남해안지역을 따라서 도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경주지역에서 초기기와 혹은 고식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된 유적을 중심으로 건물의 창건 및 완공연대 등과 평기와의 타날판의 형태를 가지고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경주지역의 중요유적 출토 평기와

번호	유적명	창건/완공 연대	무와통	단판	중판	장판	인장	비고
1	월성	101/488	○	○	○		○	
2	전 임해전지	674/ 679~680	○	○	○		○	
3	황룡사지	570/643	?	○	○		○	
4	사천왕사지	670/679			○	○	○	최초로 출현한 장판 기와(?)
5	왕정곡 제1사지 (전 인룡사지)	674	?	○	○		○	
6	인왕동 556번지		○	○	○		○	
7	삼랑사지	597			○	○		장판 기와의 보급화

72) 집안지역의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명문수막새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大吉-太羅甲戌九月造作(고구려 미천왕 15년: 314년), 「大-羅戌口(子)年口在牟造(고구려 미천왕 29년: 328년), 「大吉-己丑年口口于利作(고구려 미천왕 30년: 329년), 「泰-羅戊戌年造瓦作啓記(고구려 고국원왕 8년: 338년) 등이 확인된다.

秋鐵華, 2006, 「集安新出土文字瓦當及譯讀」 『北方文物』 第4期(總第88期), 北方文物雜誌社, pp.28~31.

73) 한성백제기의 도성인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평기와의 막새의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한성에서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하는 시점이 분주왕 원년(475년)이므로, 대체로 3~5세기 중반경으로 볼 수 있다.

74) 金基民, 2001, 「新羅기와製作法에 관한研究 -慶州 勿川里 出土기와를 중심으로-」, 東亞大學校 大醫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위 표에 의하면 무와통 혹은 통쪽 와통에 의해서 제작된 단판 기와가 초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와통식으로 성형된 기와는 곧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와통을 이용한 기와제작법의 효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판 기와 역시 중판 타날판으로 제작된 기와와 비교해 볼 때, 작업능률면에서 뒤떨어진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안압지에서 출토된 단판 기와는 매우 정성을 들여서 타날을 했고, 타날이 되지 않은 기와의 등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한 불손질로 정면을 하였다. 이러한 작업공정은 단순히 작업능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단판 기와는 궁성 혹은 관청 등으로 납품되는 기와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와 등에 찍힌 「정간(井杆)」, 「정도(井桃)」, 「한(漢)」, 「한지(漢只)」, 「상(上)」, 「하(下)」, 「생양지인(生昂之印)」, 「남궁지인(南宮之印)」, 「의봉사년(679년)개토(儀鳳四年皆土)」, 「조로이년(680년) 한지별부군약소사…삼월삼일작강…(調露二年 漢只伐部君若小舍…三月三日作康…)」명 등과 같이 제작연도, 제작처, 사용처 그리고 장인의 이름을 표시한 각종 와전의 존재는 이들 유물이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신라에서 만들어진 단판 기와는 일반 기와보다 정제된 기와로 왕궁과 관청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중판 기와는 통쪽 혹은 원통 와통에 의해 제작된 기와로 신라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기와이다.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신라 고유의 제외술이 반영된 기와로 백제와 고구려를 병합한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다. 대량생산에 적합한 제작법으로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보급되게 되면서, 고구려·백제계 제외술은 점차 소멸하게 된다.

장판 기와는 중판과 달리 매우 긴 타날판에 의해 성형된 기와로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타날판에 새겨진 문양을 보면 선조문, 어골문, 사격자문 등이 보이며 다소 복잡해진 기하학문도 있다. 타날판의 중앙부근에 만든 명문곽(銘文廓)에는 연호, 지명, 사찰명 등이 새겨 지는데, 「회창칠년정묘년말인(會昌七年丁卯年末印)<sup>75)</sup>」(신라 문성왕 9년; 847년), 「대중삼년(大中三年)<sup>76)</sup>」(신라 문성왕 11년; 849년), 「대중(大中)<sup>77)</sup>」(신라 문성왕 9년; 847년~신라 헌안왕 4년; 860년) 등과 같은 장판 기와의 존재는 장판의 출현 시점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유효하다. 하지만 이들 자료는 모두 경주 외곽 지역에서 출토된 자료이므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잉대내(仍大乃)·잉대내현(仍大乃縣)<sup>78)</sup>」, 「사라와초(沙羅瓦草)<sup>79)</sup>·사양관(沙良官)<sup>80)</sup>·

75)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9, 『扶蘇山城 發掘調査中間報告Ⅲ』

국립청주박물관, 2000,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p.130.

76) 淸州大學校博物館, 1986, 『淸州 興德寺址 發掘調査報告書』, p.60.

77) 李康承·朴淳發·成正鋪, 1994, 『神林城, 忠南大學校博物館』, pp.81~85, 그림 30-2~6, 그림 32-1·2, pp.170·171, 그림 80-1

78) 任孝宰·崔鍾澤, 1990, 『한우분-虎岩山城 및 蓮池發掘調査報告書』, 서울大學校博物館

79) 보고서에서는 「沙羅瓦草」로 읽었지만 「凡」자는 「瓦」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沙羅瓦草」로 「地名+기와」로 표기된 사례이다. 국립청주박물관, 2000,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p.132. 도판 196.

80) 보고서에서는 「工沙良官」으로 읽었으나 工자의 字體가 「沙良官」보다 현격하게 차이나는 점으로 볼 때, 「工」자는 타날판의 명문부분을 구획한 문양으로 보아야 하며, 명문은 「沙良官」로 「地名+官」이 표기된 사례이다.

국립청주박물관, 2000,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p.132. 도판 197의 중앙.



사시양(沙尸良)<sup>81)</sup>, 「관(官)·성(城)<sup>82)</sup>」(신라 흥덕왕 3년; 828년~신라 문성왕 13년; 851년), 「북한 수국해구선(北漢受國蟹口船)<sup>83)</sup>」 「대관관사(大官官寺)·대관궁사(大官宮寺)<sup>84)</sup>」등과 같은 장판 기와의 연대는 대체로 9세기를 전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기와를 경주지역 출토 장판 기와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출토사례가 알려진 장판 기와는 「사천왕사」명 평기와의 삼당사3길 유적에서 출토된 어골문 평기와 등이다. 이 중에서 「사천왕사」명 평기와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천왕사에서 사용된 전용와(專用瓦)로 인접한 여러 유적들에서 교류와(交流瓦)의 형태로 출토되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분황사<sup>85)</sup>, 경주남산 왕정곡 제1사지(전 인룡사지)<sup>86)</sup>,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 부지<sup>87)</sup>로 고려시대의 유물이 함께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장판 기와인 「사천왕사」명 평기와의 제작 연대가 고려시대가 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천왕사를 제외하고 주변에서 기와가 출토된 사례를 본다면, 소

량의 기와가 교류와로 사용된 것이다. 이 경우는 원래의 기와 제작연대와 상관없이 후대의 필요에 따라서 기와가 옮겨진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천왕사」명 평기와는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의 장판 기와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확실한 층위적 공반관계에 기초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와전류에서 ‘인장’이 확인된 사례를 살펴보면 인장의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 원형인장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인장과전
  - 삼원점문, 상·하<사진 13>, 대, □ 등
- 2) 방형의 관인 혹은 궁인을 사용하는 인장과전
  - 정잔(井柵)·정도(井桃), 정(井), 생양지인(生昂之印), 남궁지인(南宮之印) 등
- 3) 글자를 새긴 인장을 사용하는 인장과전
  - 창림, 창림사, 남궁지인, 생양지인 등



사진 13. 上·下 명 인장전

(國立慶州博物館, 2002, 『文字로 본 新羅-新羅人の 紀錄과 筆跡』, p.121. 273 전제)

81) 祥明大學校博物館, 1998, 『洪城 石城山城』

82) 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將島 淸海鎮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83) 인효재·최종택·윤상덕·정은정, 2000,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 서울시 광진구·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서울대학교 박물관

84)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1, 『王宮里遺蹟 - 發掘中間報告 III』

8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5, 『芬皇寺 發掘調査報告書 I』(遺物圖版), p.97, No.925.

8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경주 傳仁容寺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87) 慶州大學校博物館, 2006, 『慶州 佛國寺 境內 聖寶博物館 建立像定敷地 發掘調査報告書』, p.100, 도면 46-1.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경주지역 출토 인장과 및 인장전

번호	인장형식	크기(cm)		확인 사례		내용 / 유적
		지름	깊이	평기와	전돌	
1	삼원점문 (三圓點文)-1형	1.5~1.8	0.2~0.4	○	○	원안에 지름 4~7mm의 작은 원형 돌기 3개를 배치함 仁旺洞 556番地 <sup>88)</sup> 王井谷 第1寺址(傳仁谷寺址) <sup>89)</sup> 四天王寺址 <sup>90)</sup>
2	삼원점문 (三圓點文)-2형	1.6	0.3		○	원안에 지름 5.5~6mm의 큰 원형 돌기 3개를 배치함 王井谷 第1寺址(傳仁谷寺址)
3	大-1형(左)	1.5~1.6	0.1~0.2		○	원안에 左書로 '大' 자를 배치함 王井谷 第1寺址(傳仁谷寺址)
4	大-2형(右)	1.5~1.6	0.1~0.3		○	원안에 右書로 '大' 자를 배치함 王井谷 第1寺址(傳仁谷寺址)
5	上	1.9	?		○	원안에 '上' 자를 배치함 天柱寺址 <sup>91)</sup>
6	下	1.5	?		○	원안에 '下' 자를 배치함 天柱寺址 <sup>92)</sup>
7	井			○		방곽 안에 '井' 자를 배치함 雁鴨池
8	정도(井桃)			○		방곽 안에 '井桃' 자를 배치함 雁鴨池
9	井				○	표면에 '井' 자를 찍음 雁鴨池 王井谷 第1寺址(傳仁谷寺址)
10	창림/창림사 (昌林/昌林寺)			○		표면에 '昌林昌林寺' 자를 찍음 昌林寺 <sup>93)</sup> 天官寺 <sup>94)</sup>

8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仁旺洞 556·566番地 遺蹟發掘調査報告書』, p. 35, 圖面 16-1·2.

89) 필자실견

90) 필자실견

91) 國立慶州博物館, 2002, 『文字로 본 新羅-新羅人の 紀錄과 筆跡-』, p. 121, No. 273.

92)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78,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93)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磚』, p. 366, No. 1186.

94)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4, 『慶州 天官寺址』

번호	인장형식	크기(cm)		확인 사례		내용 / 유적
		지름	깊이	평기와	전돌	
11	생양지인 (生昂之印)				○	방곽 안에 '生昂之印' 을 배치함 안압지(雁鴨池)
12	남궁지인 (南宮之印)				○	방곽(3.8×3.4cm) 안에 '南宮之印' 을 배치함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부지 (國立慶州博物館 美術館敷地) <sup>95)</sup>

경주지역에서 인장와가 사용되는 시기는 무와통작법(無瓦桶作法)이나 단판 기와보다 늦다. 인장와가 주로 사용된 백제의 경우 웅진시기부터 폭넓게 확인<sup>96)</sup>되는데 비해서, 경주지역은 다소 늦은 감이 많다. 백제 지역에서 확인되는 인장와의 경우 오부(五部), 간지(干支) 등이 확인되는데 비하여, 신라 지역에서는 부호나 기호가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인장와를 제작하던 공인집단의 성격차이로 보인다. 즉 경주지역에서 인장와를 제작한 공인은 백제에서 제와기술을 가지고 온 공인으로 추정되는데, 신라에서 인장와가 확인되는 시점은 679년을 기준으로 이후일 가능성이 많다. 즉 백제가 멸망된 후 경주로 이주된 공장(工匠)들이 인장와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근거로는 인장와 및 인장전에 표기된 내용이 문자가 아니라 기호인 점이다. 이는 기존에 백제 지역에서 사용하던 방식이 변화되었음을 알려주며 그러한 계기는 결국 제작환경의 변화로 추정된다.

인장와는 경주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소멸되는데, 그러한 원인은 결국 원통 와통과 중판 타날로 제작되던 <신라기와>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고구려나 백제의 제와기술이 도태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라에 의한 고구려와 백제의 병합은 국가별로 각각 특징이 있던 제와기술을 신라의 것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귀착된 것이다<sup>97)</sup>.

## VI. 맺음말

경주지역에서 기와가 제작된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자료의 출현에 기대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무와통 혹은 통쪽 와통에 의해서 제작된 단판 기와가 초기에 사용되다가, 무와통식으로 성

95) 國立慶州博物館, 2002, 『國立慶州博物館敷地內 發掘調査報告書-美術館敷地 및 連結通路敷地-』, p.216, 圖面 107-④.

96) 崔益植, 1999, 『百濟 평기와 新研究』, 學研文化社

沈相六, 2005, 「百濟時代 印刻瓦에 關한 研究」, 公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97) “통일신라 후에는 원통 와통이 전용되면서 한반도 내에서는 모두 이 기법으로 기와를 만들고, 이후 고려·조선시대 까지 그대로 내려왔다”는 주장은 당시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이 가져온 문화적 통합결과를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최맹식, 2006,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 주류성, p.343.

형된 기와는 곧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와통을 이용한 기와제작법의 효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단판 기와는 궁성이나 관청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판 타날로 만든 기와는 비록 중판 타날판으로 제작된 기와보다 제작시 소요되는 생산성과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는 뒤떨어지지만 매우 정성을 들여서 타날을 했고, 타날이 되지 않은 기와의 등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한 불손질로 정면을 하였다. 이러한 작업공정은 단순히 작업능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들 단판 기와의 제작은 궁성 혹은 관청 등으로 납품되는 기와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단판 기와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판 기와는 통쪽 혹은 원통 와통에 의해 제작된 기와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병합한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다.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신라 고유의 제와술이 반영된 기와로 대량 생산에 적합한 제작법으로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보급되게 되면서, 고구려·백제계 제와술은 점차 소멸하게 된다.

장판 기와는 경주지역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사천왕사」 명 평기와와 삼랑사3길 유적에서 출토된 어골문 평기와 등이 알려져 있다. 경주 외곽에서는 장판 기와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타날판에 새겨진 문양을 살펴보면 선조문, 어골문, 사격자문 등이 보이며 다소 복잡해진 기하학문과 각종 문자(연호, 지명 등)가 확인된다.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의 장판 기와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천왕사지(679년 창건)에서 확실한 층위적 공반관계에 의한 기와 출토상황이 밝혀져야 될 것이다.

경주지역에서 인장와가 사용되는 시기는 무와통작법(無瓦桶作法)이나 단판 기와가 사용된 시기보다는 늦다고 추정된다. 특히 백제의 인장와는 주로 문자가 사용되는데 비하여, 신라지역에서는 부호나 기호가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인장와를 제작하던 공인집단의 성격차이로 볼 수 있으며, 신라에서 인장와가 제작되는 시점은 67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후로 추정된다. 또한 인장와 및 인장전에 표기된 내용이 문자가 아니라 기호인 점은 백제지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 변화되었음을 알려주는데, 이러한 계기는 결국 신라의 병합에 의한 제작환경의 변화로 추정된다. 그리고 인장와는 경주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소멸되는데, 그 원인으로는 결국 원통 와통과 중판 타날로 제작되던 <신라기와>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고구려와 백제의 제와기술이 도태되는데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신라에 의한 삼국의 병합은 국가별로 각각 특징이 있던 제와기술이 신라의 것으로 통일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三國史記』

『三國遺事』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製瓦匠(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

김성구, 1992, 『옛기와』, 대원사

崔孟植, 1999, 『百濟 평기와 新研究』, 學研文化社

최맹식, 2006,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 주류성

鈴木博之·石山修武·伊藤毅·山岸常人 編, 2006, 『記念的建造物の成立』 시리즈 都市·建築·  
歴史 1, 東京大學出版會(東京)

### 2. 도록

국립청주박물관, 2000,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塼』

國立慶州博物館, 2002, 『文字로 본 新羅-新羅人の 紀錄과 筆跡-』

濱田耕作·梅原末治, 1934, 『新羅古瓦の研究』, 京都帝國大學文學部

朝鮮總督府, 1917, 『朝鮮古蹟圖譜』 五

### 3. 논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문화재산책 - 傳 天柱寺址」 『慶研考古』 제9호

김창호, 2007, 「新羅 기와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한국 고대 불교고고학의 연구』, 서경문화사

金誠龜, 1983, 「多慶瓦窯址出土 新羅瓦塼小考」 『美術資料』 第三三號, 國立中央博物館

金有植, 2007, 「삼국·통일신라 와요지 조사 현황과 연구 방향」 『제50회 전국역사학대회』

朴洪國, 1980, 「慶州地方에서 出土된 文字銘瓦」 『全國大學生學術研究發表論文集』(人文分野), 高麗大學徒護國團

朴洪國, 1986, 「三國末~統一初期 新羅瓦塼에 대한 一考察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그 出土 瓦塼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 請求論文

朴洪國, 1988,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出土 瓦塼에 對한 考察」 『嶺南考古學報』 5, 嶺南

考古學會

- 車順喆, 1998, 「大邱市 漆谷 3地區 建物址遺蹟 發掘調查 概報」 『제9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조사 연구발표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 趙成允, 2002, 「慶州 出土 中板 打捺文樣 평기와의 製作時期와 그 意味」 『佛敎考古學』 第2號, 威德大學校博物館
- 申昌秀, 1987, 「三國時代 新羅기와의 研究-皇龍寺址 出土 新羅기와를 中心으로-」 『文化財』 第20號,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 沈相六, 2005, 「百濟時代 印刻瓦에 關한 研究」, 公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 장경호, 1988, 「한국 전통기와 제작기법과 그 규격에 관한 고찰」 『초우 황수영박사 고희기념 미술사학논총』, 통문관
- 조성운, 2003, 「新羅 長板 打捺文樣 平기와의 慶州製作與否에 대하여」 『梨花史學研究』 第30輯, 梨花史學研究所
- 趙成允, 2006, 「新羅 瓦로 본 雁鴨池 築造에 대하여」 『佛敎考古學』 第6號, 威德大學校博物館
- 차순철, 2000, 「경주지역 평기와 수급관계에 대한 일고찰-석장사지 출토 평기와를 중심으로-」 『신라학연구』 제4집, 위덕대학교부설 신라학연구소
- 차순철, 2007, 「사원출토 평기와의 수급관계 고찰」 『불교미술사학』 제5집,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 최맹식, 2001, 「평기와 연구의 최근 동향」 『백제연구』 제34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金基民, 2001, 「新羅기와 製作法에 關한 研究 -慶州 勿川里 出土기와를 中心으로-」, 東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 崔兌先, 1993, 「平瓦製作法의 變遷에 對한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 이선희, 2006, 「월성해자 출토 수막새의 同范瓦 검토」 『慶研考古』 제7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이선희, 2006, 「수막새의 동범와(同范瓦)에 대한 검토」 『文化財』 第三十九號, 國立文化財研究所
- 李仁淑, 2004, 「統一新羅~朝鮮前期 평기와 製作技法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 Abstract

### **A Study on changes in Hitting–pressing forms of flat plate in Gyeongju area –Short beating, Medium beating plate, long beating plate and Stamped–roof tile–**

Cha Soon-chul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entering around ruins recognized of being relatively early stage related to flat tile and brick, excavated in Silla capital area, the study attempted elementary approach to seek the appearance time of every remain through comparing them from the excavated cases and production methods of Short beating, Medium beating plate, Long beating plate and Stamped–roof tile.

Gyeongju began to use the short beating plate made of tile–less plates or tile plate and increased its quantity. That is deemed to be due to efficiency of beating plate making methods, and moreover to be limited only for use in the palace castle and offices. That is, making short beating plates is presumed to be made merely under some definite objectives.

Medium beating plate has been spread to the whole country since Silla and Baekje united. Differently from Koguryo and Baekje, Silla had its unique Beating–plates making technology available for mass–production, which was spread to the whole country and resulted in disappearing of Koguryo and Baekje technology.

Long beating plate was not nearly founded in Gyeongju area, but flat tile and common tile excavated in Sachunwang Temple site and Samrang Temple 3rd remains are known. In the outskirts of Gyeongju, long beating plate appeared between the latter half of

8C and the beginning of 9C. Until now, different views have raised to appearance of long beating plate of Unified Silla, which is expected to be clarified under the situation excavated by position relations.

Stamped-roof tile in Gyeongju is estimated as used after the datum point year 679. While in Baekje area, five stems and branches were involved, in Silla area, code or sign was shown much. The difference between two areas would be due to each other factory, and especially the marked contents werenot letters, which means it had been changed from Baekje's existing-methods. That is, it says the production environment changed owing to Silla's merging. And stamped-roof tile was temporarily used in Gyeongju but soon disappeared, which was because Silla beating plates made under cylinder-shaped tile barrel(圓筒瓦桶) and hitting-pressing of Medium beating plate had beenspread to the whole country, so the production technology of Koguryo and Baekje was naturally dismissed. In consequence, the mergence by Silla brought about unification of each nation's special technology.

Keywords : Gyeongju(경주), beating plate(打捺板), Short beating plate(短板), Medium beating plate(中板), long beating plate(長板), Stamped-roof tile(印章瓦)